

본회 '94 전국양돈인대회 성황리 개최

-대선 공약인 사료 부가세 영세율 조속 적용 등 대정부 건의문 4개항 채택

-홍보부-

전국의 양돈농가 2,000여명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UR이후 생존과 도약을 위한 '94 전국 양돈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자당의 15대 대선공약사항인 사료 및 동물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조속히 적용, 개방화시대에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UR 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돼지고기 수입개방과 WTO 체제에서 국내 양돈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위원,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박범진 민자당 대변인 등 국회의원 10여명, 박철우 축협중앙회 부회장 등 축산관련 기관·단체장



100여명과 전국의 지역양돈 대표자 1,800여명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제1부 결의대회와 제2부 기념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결의대회는 ▲ 내빈소개 ▲ 시상(양돈대상, 모범양돈농가상) ▲ 전동용 회장 대회사 ▲ 김종필 민자당 대표위원 축

사 ▲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격려사 ▲ 결의문 채택 ▲ 대정부 건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 기념특강에는 김성훈 교수(중앙대 산업대학)가 “UR과 한국 농축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리고 있는 '9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 (SIEMSTA '94)를 참관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양돈농가는 손발이 부르트는 노력 끝에 불모지였던 국내 양돈산업을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동용 회장은 “UR 협상 타결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이제 축산업계는 국제경쟁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경쟁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 기필코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전회장은 “UR 이후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속 적용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형 양돈산업 육성 ▲ 연도별 돼지고기 자급률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무임승차자 없는 명실상부한 자조금제도 법제화 ▲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산지이용 규제 완화와 축사 건축 규제의 대폭 해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위원은



◀ 양돈인 대상 수여 광경



◀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열띤 취재 경쟁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축산업계의 최대 숙원 사항인 사료 및 동물약품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 우리 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사료와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

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축산공해 방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금년보다 225%나 대폭 늘어난 1,094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양돈전업농을 육성하고 양돈단지를 확대·조성하며 생산·가공·유

